

광주·전남 신규 확진 5610명 감소...확산세 주춤

광주시, 중증병상 추가 확보 등 치명률 최소화 대책 마련 방역당국,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당분간 지속 전망도

연일 코로나19 최다 신규 확진자 기록을 갈아치우던 광주·전남에서 모처럼 확산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선 최정점을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희망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방역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등으로 확산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중증병상 추가 확보 등 치명률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화장장 가동 등도 늘리기로 했다.

2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 8461명, 전남 6857명 등 1만 5318명이 신규 확진됐다. 전남과 비교하면 광주 1570명, 전남 4040명이 각각 감소한 것이다. 광주는 지난 14일 처음으로 하루 1만명의 신규 확진자를 기록한 뒤 일주일 만에 1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광주에선 다만 이날 코로나19 확진자 중 13명이 숨졌으며, 관련 사망자 누적 265명을 기록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중증병상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신속히 추가 병상을 확보하고, 화장장 가동 등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남에서도 전남보다 4000여명이 감소하긴 했지만, 이날 685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목포 1255명, 순천 1083명 등 22개 시·군 전체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도내 확진자의 27.3%인 1871명은 유치원생 또는 초·중·고교 학생으로 집계됐다. 기존 집단감염지였던 요양병원 등 시설 관련 확진자 비중은 4.3%(297명)에 그쳤다.

전남도는 이날 감소세에 대해 휴일 검사량 감소에 따른 일시적 감소 현상일 수 있다며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에 선부르다는 분석을 내놨다.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가능 도내 491개 의료기관의 휴일 후무로 인해 검사량이 4000건 이상 줄었기 때문에 월요일 신규 확진자 감소로 연결됐다는 설명이다.

전남도는 여기에 전파력이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빠른 것으로 평가되는 스텔스 오미크론의 유행

과 이날부터 기존 6인에서 8인으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확대되는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1만명대 신규 확진자 발생은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전남도는 전망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국내 유행의 정점도 4월 초 기준 전남보다 1~2주 가량 늦춰질 것이라는 예상도 덧붙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이날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계통인 'BA.2',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의 국내 검출 비중이 빠르게 커지면서 유행 정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중 BA.2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확진을 인정하게 되면서 유행 정점까지 기간이 지연되고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국내·국의 감염사례의 대부분이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됐고, 세부 계통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에서 전파력이 보다 높은 BA.2의 검출률이 국내 사례에서는 41.4%, 해외 유입사례에서는 56.9%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3월 3주차 국내 주요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은 오미크론이 99.99%로 사실상 100%에 달했다. 오미크론 변이 중에서도 BA.2의 검출률은 최근 4주 새 10.3%→22.9%→26.3%→41.4%로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이와 함께 3월 3주차 코로나19 위험도는 3주 연속 전국,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으로 평가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교육부 폐지·기능 축소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민주당 강득구 의원 조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교육부 폐지나 기능 축소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지난 1월 5~14일 전국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923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65.6%가 교육부 폐지나 기능 축소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보면 부정 응답률은 학부모에서 69.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원이 63.3%였다. 학생은 절반 가량인 47.9%가 교육부 폐지나 기능 축소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고등교육 정책을 교육부에서 빼내 대학 자율을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52.5%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별로는 학생 찬성률이 67.2%로 가장 높았고 교원은 53.0%가 찬성했다. 반면 학부모는 50.2%가 '매우 그렇지 않다'라거나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평생교육 정책 확대에 대한 입장을 물었을 때는 79.4%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해당 물음에서는 집단과 학교급에 상관없이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담당하는 '돌봄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느냐고 물었을 때는 63.3%가 '그렇다'라거나 '매우 그렇다'고 했다. 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것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62.7%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교육 인사는 0명"이라며 "교육 분야 정부조직 개편은 사각지대 없이, 아이들을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02%포인트다. 17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배부된 온라인 설문지에 응답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21일 광주송정역 앞 정류소에서 열린 무장애 시티투어 버스 시승식에서 휠체어 승객들이 버스에 오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무장애 시티투어 버스 본격 운행 11월 30일까지 하루 2회...휠체어 전용 2석 포함 20석

광주시는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무장애 시티투어 전용버스 1대를 구입하고 22일부터 운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운행에 앞서 21일 광주송정역 앞 시티투어 버스 정류소에서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 조석호 시의회 부의장, 김나운 교육문화위원장, 정진삼 장애인문화협회장과 관광약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장애 시티투어버스 시승식도 가졌다.

광주 무장애 시티투어 전용버스는 휠체어 전용 2석을 포함해 총 20석으로, 수어와 다국어어를 포함한 디지털 가이드를 도입해 광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편리하게 도심 관광을 즐길 수 있다.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광주송정역→공항역→유스퀘어터미널→중

외공원→전통문화관→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일빌딩→양림역사문화마을→김치타운→공연마루(오후만)→유스퀘어터미널→공항역→광주송정역 코스로 일일 2회 운행한다.

김성태 광주시 관광진흥과장은 "무장애 시티투어 전용버스 도입으로 광주를 여행하는 관광약자의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를 대표하는 관광 아이콘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내고 적극 알리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연계 투어버스는 1코스 무등산권 지질 명소투어, 2코스 빛고을남도투어, 3코스 남도맛기행투어 프로그램으로 3개의 코스로 구성돼 있으며, 매주 토요일 하루 1회 운행한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 임신부 1인당 10만원씩 코로나 대응 활동비 지원

광주시는 "2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임신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원비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광주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임신이 확인된 사람이다. 지난 15일까지 출산했거나 16일부터 광주에 전입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www.광주아이키움.kr)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이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임신부, 심한 장애인, 가정양육 아동, 어린이집 원생, 유치원 취학 전 아동에게 자가 진단 키트 구매 등 방역 강화 활동비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임신부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기준일 이전 출산한 산모는 가정양육 대상으로 지원받는다.

구비서류는 전입일이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모자수첩, 기타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와 임신부 본인의 통장사본이다. 지급은 서류심사 후 4월 중 임신부 통장으로 지급된다.

최신영 광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임신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급기준일 이전에 임신부였어도 출산한 경우 가정양육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출생신고를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코로나 현장 인건비 267억 지원 정부 건의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시·군·구 대응현장의 임시 인력 채용을 위한 267억원 규모의 재정 투입을 건의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 이후 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자체 공무원에 비롯한 현장 대응 인력의 피로가 쌓였고, 방역 담당 공무원은 물론 타 부서 겹치 공무원들의 업무과중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장 대응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건비 지원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협의회는 "나날이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

하여 현장 대응 공무원들이 탈진 직전에 와있고, 방역 업무에 차질된 인원이 늘어날수록 다른 업무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현장에서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자체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 인력 투입을 위해 인건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앞서 지난 2월 22일 공동최종단 회의를 통해 ▲공소진될 것으로 판단되는 확진자 생활 지원비 축소 또는 지원 대상 변경 ▲지정 호흡기 전담 클리닉의 코로나19 진단비 국비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지원 완화 등의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에 긴급 건의한 바 있다. /김형호 기자 khh@

임야 3천평이상 삽니다
지분환영. 010-8902-7900

급매·교환
하실분. 010-3605-50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상무매매 (상무지구)

-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구
- 6층, 7층 (140평)
- 시세 9억 → 급매 6억
- (보3천, 월 350만, 용 3억5)
- (리모델링완비, 모든업종가능, 사무실, 유흥)

문의. 010-6670-9800

커피(제과점) 급 임대

- 신창지구(중심가도로 접함)
- 1층 전용(38평)2칸
- (시설완비, 즉시입주, 시설비 40%인수)

문의. 010-4667-9820